

부모와의 애착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의 관계: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이 경 선 이 지 연* 장 진 이
인천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부모와의 애착,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자기파괴적 충동행동으로서의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부모와의 애착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은 부모와의 애착보다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더 큰 관련성을 나타냈고, 특히 과거 대인관계 패턴과의 관련성이 가장 컸다. 또한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은 어머니와의 애착과 달리 아버지와의 애착과는 관련성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부모와의 애착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다. 남녀 집단별로 구분하여 검증한 결과 여학생 집단에서만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매개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남녀 대학생의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에 대한 예방과 치료적 개입에서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평가와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주요어 :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 자기파괴적 충동행동, 부모와의 애착,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 교신저자: 이지연,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2-1
Tel: 032-835-8160, E-mail: becoming@incheon.ac.kr

2011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성인 인터넷 중독률은 최근 5년새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 가운데 학생 신분을 가진 성인 학생의 경우 10.3%로 가장 높았다(2012,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취업난과 과도한 스펙쌓기 경쟁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으로 대변되는 성인 학생의 인터넷 중독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을 초래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에 대한 탐색과 효과적인 예방교육 및 상담적 개입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는 중고등학생과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 연구는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이 청소년의 다양한 발달과 정서 및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을 초래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들을 탐색해 왔다(유성희, 2009; 이현덕, 홍혜영, 2011). 이러한 인터넷 중독을 초래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탐색은 청소년을 위한 예방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경험적 근거를 마련해 왔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에 비해 최근에 인터넷 사용량이 늘면서 인터넷 중독률이 증가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들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찾고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의 과도한 이용으로 학업, 직업,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를 말한다(Young, 1996). 조소현(2004)은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을 정서조절을 위해 선택하게 되는 자기파괴적 충동행동 가운데 하나로 개념

화하였다. 자기파괴적 행동은 장기적으로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행동으로 인간 행동 가운데 가장 역설적인 것이다. 고통스러운 정서를 경험하게 되면 장기적인 자기조절보다는 순간의 정서조절에 우위를 두게 되므로 자기파괴적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자기파괴적 행동들이 자신의 정서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을 때 더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즉각적이고도 지속적인 정서조절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서조절이 유지되는 시간은 짧고 자기파괴적 충동행동으로 인한 죄책감 등을 부가적으로 경험하게 된다(Leith & Baumeister, 1996; Tice, Bratslavsky, & Baumeister, 2001). 이러한 자기파괴적 행동의 예로 폭식 행동, 알코올 중독 등을 들 수 있는데,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고 순간적인 만족을 얻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가상현실로 도피하여 궁극적으로 인터넷에 의존하게 되는 인터넷 중독 역시 대표적인 자기파괴적 충동행동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조소현, 2004). 인터넷 공간으로 도피함으로써 현실세계에서의 고립감이나 고독, 위축, 외로움 등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김은영, 2012; 이유경, 2002; 이현덕, 홍혜영, 2011; 이형초, 2001).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인과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친밀함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친밀감은 자신을 상실한다는 두려움 없이 자기정체감을 자신 외의 누군가와 연결시키는 것이다(Evans, 1967, 한미혜, 2010 재인용). 즉,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타인과 개방적이고 지지적이며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건

강한 대인관계의 핵심 요소이자(Bartholomew, 1990), 대인관계의 질과 진정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친밀감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심리적 적응과 안녕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데(Descutner & Thelen, 1991), 친밀감에 대한 욕구 충족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박혜련, 손은정, 2012; 원두리, 김교현, 2006; 장미희, 이지연, 2011; Firestone & Catlett, 2006). 그러나 친밀함에 대한 욕구가 이와 같이 기본적인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친밀해 지는 것에 두려움을 경험한다면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fear of intimacy)은 친밀감의 형성을 방해하는 심리적 불안으로서, 자신의 개인적 정보나 생각 및 감정을 가까운 사람에게 솔직히 표현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을 말한다(Descutner & Thelen, 1991).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은 친밀한 관계속에서 자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한데, 이러한 두려움을 가질 경우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타인과 과도한 정서적 거리감을 느끼며 동시에 거부나 유기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남순현, 2000). 이러한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의 발생과 유지에 부모와의 관계 경험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생애초기에 형성된 애착 유형이 영향을 미친다(Bartholomew, 1990). 초기 양육자인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서 비롯된 내적작동 모델은 대인관계를 발달시켜 나가는 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친밀한 관계에 큰 영향을 준다(Sroufe & Fleeson, 1996).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정애착 유형의 경우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낮았고(Lutwak, Panish, & Ferrari,

2003), 회피애착 유형의 경우 친밀감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나타냈다(조윤주, 2006; Bartholomew, 1990). 즉,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성인은 타인과 비교적 쉽게 사귄 수 있고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타인이 자신에게 의지할 때 편안함을 느끼며 타인으로부터 버림받거나 가까워지는 것에 불안해하지 않는다(유성희, 2009; Hazan & Shaver, 1987). 또한, 애착이론에 따르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양육자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유대는 생존에 중요한 안전기지 역할을 하여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할 경우 자신들의 정서를 조절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부모를 이용한다(Williams & Kelly, 2005, 임수진, 안진홍, 2012 재인용).

이상에서 살펴본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고립감, 외로움 등의 정서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정서 상태로부터 벗어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김은영, 2012; 이유경, 2002; 이현덕 외, 2011; 이형초, 2001) 누구나와 자유롭게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대인관계 변인들 가운데 부모 변인으로서 부모와의 친밀감(김진희, 김경신, 200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부정적 양육태도(김영혜, 2010) 등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부모 변인을 단일 변인으로 하여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것으로 부모 변인들이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통해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과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탐색하지 않았다.

사회적 관계망이 좁거나 외로운 사람일수록 누구나와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하

여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만큼(김은영, 2012),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친구의 지지가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심란희, 2004; 이해경, 2002). 따라서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실세계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수록 더 중독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고립되지 않고 타인과 친밀감을 경험할 경우 타인의 기대에 민감해지고 강한 유대감을 통해 자기조절력을 가지고 중독 등의 자기파괴적 충동행동을 통제하게 된다. 이는 친밀감이 자기파괴적 충동행동의 억제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유성희, 2009)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기조절을 방해하는 변인이 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에 이러한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부모와의 애착 등 부모 관련 변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이 반복검증되어 오고 있는 만큼(김영혜, 2010; 유성희, 2009; 이현덕 외, 2011) 이들 변인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변인을 찾고 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현덕 등(2011)에 따르면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변인 모두 외로움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와의 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단일 변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다른 변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효정(2006)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 유형은 인터넷 중독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고, 오직 친구와의 애착 가운데 회피 유형의 경우

만 인터넷 중독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일관적이지 않은 연구 결과는 대학생 집단에서 부모와의 애착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과의 관련성이 청소년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애착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인터넷 사용에서 남녀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남자는 주로 게임이나 오락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여자는 교류나 정보추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였다(주석진, 좌동훈, 2011; Lin & Yu, 2008). 인터넷 중독에서도 남녀에 따라 차이를 보여 남자 청소년들은 주로 게임중독에 빠지지만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채팅중독의 경향이 높았다(전신현, 2012).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대인관계적인 동기로 중독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와의 애착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에 대해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미치는 영향력 역시 남녀 대학생 간에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별로 구분하여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부모와의 애착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탐색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전략 개발을 위한 경험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인터넷 중독을 초래하는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를 촉진시킬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 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가?

둘째, 대학생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부모와의 애착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셋째, 부모와의 애착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는 남녀 대학생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날 것인가?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소재 4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설문조사하였다. 회수된 269부의 설문지 가운데 응답이 누락된 경우나 무성의하게 답변한 15부를 제외한 총 254부를 최종적으로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구성은 남학생 96명(37.8%), 여학생 158명(62.2%)이었다.

측정도구

부모와의 애착

Armsderm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청년기 부모와 또래에 대한 정의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의 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 척도(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한국문화에 적합하도록 유은희(1991)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11문항과 자신이 작성한 5문항을 포함하여 어머니

와 아버지 각각에 대해 16 문항씩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 자녀의 의견과 요구의 존중, 자녀의 정서 상태에 대한 민감성 등을 포괄하는 부모의 반응성, 스트레스 상황 시 부모와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를 포함하는 근접가능성에 대한 자녀의 신뢰, 부모에 대한 동일시, 좋아함, 편안함, 분노, 불편함 등으로 구성되는 부모에 대한 감정 등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는 내 감정을 존중하여 준다.’ ‘어머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등으로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5점 Likert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잘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며,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 점수를 더한 것을 부모와의 애착이라고 한다. 유은희(1991)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5였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현재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나 앞으로 예상되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서 Descutner와 Thelen(1991)이 개발한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 of Intimacy Scale: FIS)를 한선영(200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5문항으로 ‘내가 과거에 수치심을 느꼈던 일을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등 현재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대인관계에서의 두려움을 측정하는 30문항과 ‘나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기회가 있으면 그때마다 한 발 짝 뒤로 물러서곤 했다.’ 등 과거 대인관계 행동 패턴을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5

점 Likert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선영(2005)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4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1였다.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

Young(1996)에 의해 개발된 척도로 송원영(1999)이 번안하고 조소현(2004)이 대학생용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인터넷 사용의 중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용을 중지하거나 이용 시간을 줄이려고 시도할 때 불안하거나 울적해진다’, ‘원래 의도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접속하게 된다.’ 등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5점 Likert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점수 범위는 1점에서 40점이다. 조소현(2004)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2이었다.

문항꾸러미 제작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은 총 8문항으로 하나의 잠재변인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Russell, Kahn, Spoth, &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세 개의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 잠재변인에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단일 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에 따라 순위를 매긴 후 1번~3번 문항, 4번~6번 문항, 7번~8번 문항 등 세 개 꾸러미들의 요인부하량의 합이 비슷하도록

하였다. 이는 각 꾸러미들이 잠재변인에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잠재변인에 대한 꾸러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꾸러미가 해당 잠재변인을 같은 수준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Russell 등(1998)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분석 방법

전반적인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각 변인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후 부분매개 효과 모형과 완전매개 효과 모형 간의 비교를 위하여 적합도와 모형의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부모애착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남녀집단에서 매개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형태동일성 검증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남녀 집단 각각에 대하여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통계 프로그램과 AMO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대학생의 부모애착,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간의 관계를 살핀 결과, 모애착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r=-.18$, $p<.01$), 부모애착 총점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

표 1. 부모애착,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 간 상관관계 (N=254)

변인	부모애착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
	부애착	모애착	전체	현재 또는 미래 대인관계 두려움	과거 대인관계 패턴	전체	
부모 애착	부애착	1					
	모애착	.43**	1				
	전체	.87**	.81**	1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현재 또는 미래 대인관계 두려움	-.33**	-.27**	-.35**	1		
	과거 대인관계 패턴	-.18**	-.17**	-.21**	.34**	1	
	전체	-.33**	-.28**	-.37**	.98**	.52**	1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	-.07	-.18**	-.15*	.25**	.32**	.30**	1
M	3.58	3.96	3.77	2.39	2.42	2.39	1.94
SD	.85	.69	.65	.53	.74	.50	.64
첨도	-.32	.53	-.12	-.64	-.27	-.64	-.06
왜도	-.50	-.81	-.46	-.01	.27	.07	.65

* $p < .05$, ** $p < .01$, 부모애착(1-5),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1-5),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1-5)

용($r = -.15, p < .05$) 간에는 낮은 수준의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그러나 부애착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과의 관련성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모애착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r = -.37, p < .01$) 간에는 낮은 수준의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애착은 $r = -.33(p < .01)$, 모애착은 $r = -.28(p < .01)$ 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 간에는 낮은 수준의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r = .30, p < .01$). 하위 요인별로는 현재 또는 미래 대인관계 두려움은 $r = .25(p < .01)$, 과거 대인관계 패턴은 $r = .32(p < .01)$ 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1과 같다.

측정 모형 검증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세 변인간의 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 또한 $CFI = .954, TLI = .913, RMSEA = .083$ 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의 요인 값은 부모와의 애착은 .62~.70,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63~.53,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은 .69~.85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구체적인 결과는 그림 1, 표 2,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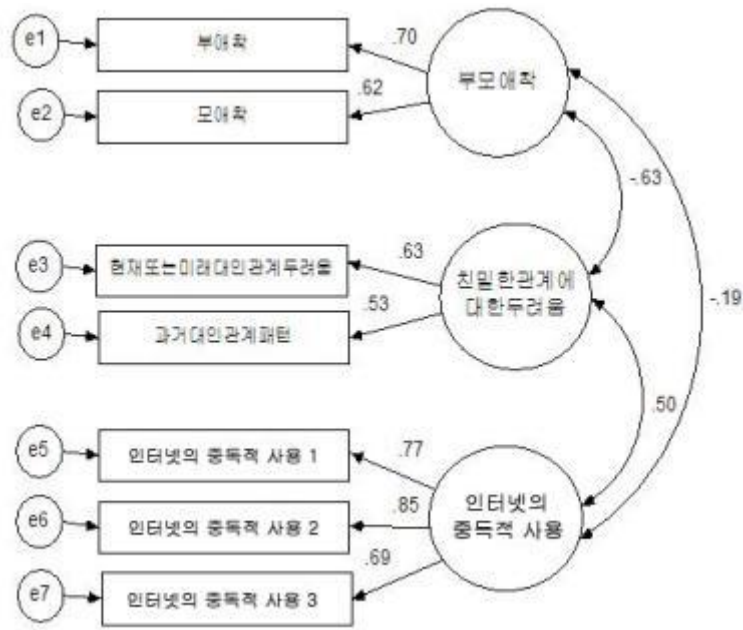


그림 1. 측정 모형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90% 신뢰수준)
측정모형	30.19	11	.913	.954	.083(.048-.119)

표 3. 측정모형의 요인 값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표준화 계수
부모애착	부애착	1.00			.70
	모애착	.72	.16	4.44***	.62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현재 또는 미래 대인관계 두려움	1.00			.63
	과거 대인관계 패턴	.19	.04	4.98***	.53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 1	1.00			.77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 2	1.06	.10	11.06***	.85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 3	.64	.06	10.23***	.69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애착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가 부분매개 효과인지 완전매개 효과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분매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을 설정하여 모형 간 비교를 하였다. 두 모형에 대한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chi^2=1.54, df=1, p<.05$).

χ^2 검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부분매개 모형을, 유의미하지 않으면 간명성을 고려한 완전매개 모형을 선택하므로(홍세희, 2001) 완전매개 모형을 선택하였다. 구체적인 적합도 지수와 완전매개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4, 표 5, 그림 2와 같다.

부모애착에서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는 직접효과는 $\beta=-.60(p<.001)$,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중독적인 인터넷 사

표 4.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Model	df	χ^2	$\Delta\chi^2$	TLI	CFI	RMSEA (90% CI)
모형 1 (부분매개모형)	11	30.19	1.54	.913	.954	.083 (.048-.119)
모형 2 (완전매개모형)	12	31.73		.918	.953	.081 (.047-.115)

표 5. 완전매개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화 계수	C.R.
부모애착(a) →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70	.16	-.60	-4.25***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b) →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	.07	.02	.45	4.08***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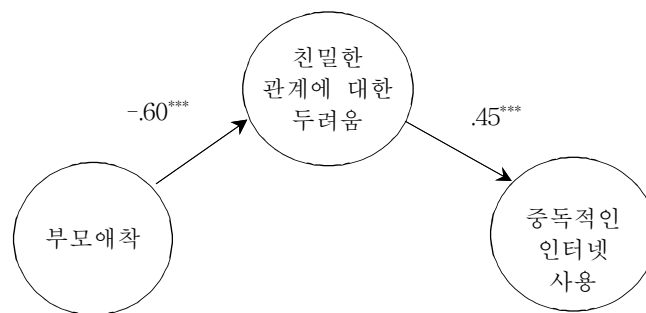


그림 2. 최종 구조모형

용으로 가는 직접효과는 $\beta=.45(p<.001)$, 부모 애착에서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으로 가는 간접효과는 $\beta=-.27(p<.01)$ 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다($Z=2.73, p<.05$).

부모와의 애착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남녀 별 매개효과

분석 결과 여학생 집단에서만 완전매개 모형이 성립되었다. 총 효과 분해를 실시한 결과 부모와의 애착이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는 경로($\beta=-.55, p<.01$)와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으로 가는 경로($\beta=.53, p<.001$)가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고, 부모와의 애착이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으로 가는 경로($\beta=-.29, p<.01$)는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모형의 경로 계수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6, 그림 3과 같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자기과파적 충동행동으로서의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과의 관련성을 살피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부모와의 애착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매개효과가 남녀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애착,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에 대하여 설문조사하였고, 남학생 96명과 여학생

표 6. 여자집단의 완전매개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화 계수	C.R.
부모애착(a) →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66	.20	-.55	-3.25**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b) →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	.08	.02	.53	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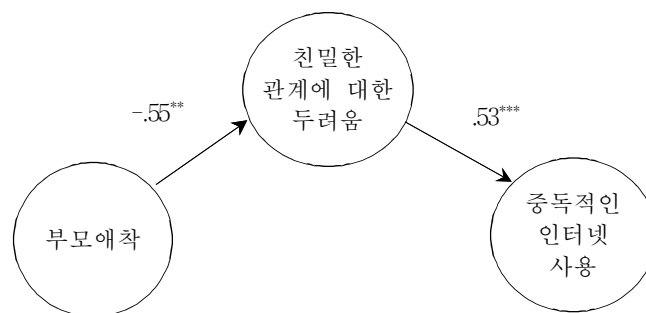


그림 3. 여학생의 최종 구조모형

158명 등 총 25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부모와의 애착,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은 부모와의 애착($r=-.15$)과도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냈지만,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r=.30$)과의 관련성이 더 높았다. 이는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애착 유형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전효정(2006)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인데, 전효정(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애착 척도는 애착 유형을 측정하는 것으로 안정, 불안, 회피 유형을 하위요인으로 포괄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애착 척도는 애착을 부모 반응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와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욕구 등의 자녀의 신뢰, 부모에 대한 감정을 측정하고 아버지 애착과 어머니 애착을 하위요인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관적이지 않은 연구 결과는 측정된 구인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에 대한 조작적 정의의 일치 후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과의 관련성을 재검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은 부모와의 애착 가운데 어머니와의 애착과의 관련성은 유의미하였으나, 아버지와의 애착과는 관련성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존의 인터넷 중독과 부모애착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밝혀 낸 연구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애착을 분류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아버지와의 애착 수준과 어머니와의 애착 수준을 분류하여 분석함으로써 대학생의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에 어머니와의 애착 수준이 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과연 어머니와의 애착이 아버지와의 애착보다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한편,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은 어머니와의 애착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r=-.28, p<.01$)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의 애착과도 부적 상관($r=-.33, p<.01$)을 나타냈다. 본 연구 참여자들 가운데 여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만큼 과연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와의 애착 수준과 더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과거 대인관계 패턴으로 인한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과의 관련성이 가장 큰 만큼 인터넷 중독에 대한 교육 및 상담적 개입에서 과거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탐색과 변화를 위한 전략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살핀 결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부모와의 애착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다. 따라서 부모와의 애착이 대학생의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는 타인과 친밀감을 경험할 경우 타인의 기대에 민감해지고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어 자기조절력을 가지고 자기파괴적 충동행동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친밀감이 자기파괴적 충동행동의 억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유성희(2009)의 연구와 종합해 볼 때 친밀감이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상담적 개입에서 친밀감 형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할 경우 친밀감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매개한다는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외로움이 부모애착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임을 밝혀낸 이현덕 등(2011)의 결과와 함께 부모 애착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에 다양한 매개변인이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전효정(2006)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모와의 애착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 간의 관련성에서 청소년 집단과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하였으나, 본 연구 참여자들인 대학생 집단에서도 부모와의 애착이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에서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단, 본 연구의 부모와의 애착은 애착 유형이 아닌 아버지와의 애착과 어머니와의 애착을 하위요인으로 하는 애착의 질을 측정한 만큼 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부모애착 외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탐색과 이들 변인들과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또한 남녀 집단에서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가 동일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형태동일성을 충족하지 않아 남녀별로 각각 매개모형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 집단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이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여학생 집단에서만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매개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대인관계적인 동기

로 중독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였는데(전신현, 2012; 주석진 외, 2011), 본 연구 결과에서도 관계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완전매개 효과는 여학생 집단에서만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 집단의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개입에서는 대인관계적 동기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자는 교류나 정보추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였고(주석진 외, 2011; Lin et al., 2008), 게임중독 경향성이 높은 남자 청소년들과 달리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채팅중독의 경향성이 높았다(전신현, 2012). 이는 여학생과 남학생 간에 중독적으로 인터넷을 사용을 초래하는 심리적 기제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관련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종합해 보면,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의 극복은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에 대한 예방적 혹은 추후 개입적 국면 모두에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예방적 차원에서는 친밀감에 대한 욕구의 자연스러움을 수용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심리적 개입에서도 중독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소외감과 외로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 게임 등에 몰입할 경우(김영혜, 2010)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이로 인한 친밀감에 대한 욕구 좌절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상담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특정 지역의 대학생으로 제한되었고, 여학생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만큼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

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부모와의 애착은 부모 반응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와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욕구 등의 자녀의 신뢰, 부모에 대한 감정 등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함으로써 부모와의 애착 유형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과의 관련성은 비교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현덕 등(2011)의 연구 결과 애착불안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애착회피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인터넷 중독을 초래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탐색에서 애착 유형별 탐색이 필요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 유형별로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학생 신분을 가진 성인의 인터넷 중독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 온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애착이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 및 상담적 개입에서 부모와의 애착, 친밀감 등 대인관계적 동기와 관련된 변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 줌으로써 상담 현장에서 개입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김은영 (2012). 자기결정성동기이론의 세 가지 욕구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311-330.
김영혜 (2010). 부정적 양육태도와 차폐가 인

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885-900.
남순현 (2000).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에 관한 연구: 성인 자녀 가족과 3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혜련, 손은정 (201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자기노출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3), 1083-1099.
심란희 (2004). 인터넷중독과 자기 효능감, 자기통제력,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의 관련성.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두리, 김교현 (2006). 심리적 웰빙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웰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125-145.
유성희 (2009). 성인 여성의 애착유형과 중독 성향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은희 (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유경 (2002). 컴퓨터 게임 중독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혜경 (2002).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의 폭력 게임 중독을 예측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4), 55-79
이현덕, 홍혜영 (2011). 중학생의 애착과 인터넷 중독성향간의 관계: 외로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8(10), 271-294.
이형초 (2001). 인터넷 게임 중독의 진단 척도 개발과 인지행동치료 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인터넷중독대응센터 (2012). 2011년 인터넷중

- 독 실태조사.
- 임수진, 안진홍 (2012). 아동의 어머니 애착과 학교적응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331-346.
- 장미희, 이지연 (2011). 모애착, 거부민감성,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1), 35-53.
- 전신현 (2012). 고등학생들의 인터넷사용 및 그 유형과 우울의 관계: 성별 차이의 검증 중심. *보건과 사회과학*, 31, 153-173.
- 전효정 (2006).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따른 애착유형과 심리적 특성. *청소년학연구*, 13(3), 137-159.
- 조소현 (2004). 정서 강도와 정서 인식의 명확성이 자기 파괴적 충동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운주 (2006).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의 관련 변인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석진, 좌동훈 (2011).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예측 모형: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족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18(5), 165-190.
- 차미숙 (2006). 외로움이 청소년의 휴대폰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재요인.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영 (2008). 청소년의 애착과 성취욕구가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혜 (2010). 원가족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성인초기 자녀의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11(2), 555-570.
- 한선영 (2005). 부모 애착과 이성 관계에서 느끼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원 효과 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21(1), 129-143.
- Bartholomew, K. (1990). Avoidance of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147-178.
- Descutner, C. J., & Thelen, M. H. (199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ear-of-Intimacy scale.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 218-225.
- Firestone, R. W., & Catlett, J. (2006). *Fear of intimacy*.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Leith, K. P., & Baumeister, R. F. (1996). Why do bad moods increase self-defeating behavior? emotion, risk taking, and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6), 1250-1267.
- Lin, C. H. & Yu, S. F. (2008). Adolescent Internet Usage in Taiwan: Exploring Gender Differences. *Adolescence*, 43(2), 317-331.
- Lutwak, N., Parish, J. B., & Ferrari, J. R. (2003). Shame and guilt: Characterological vs. behavioral self-blame and their relationship to fear of intima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909-916.
- Sroufe, L. A., & Fleeson, J. (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Hartup Z. Rubin (Eds.). *Relationships and*

- Development*(pp.51-71). Hillsdale, N. J.: Erlbaum.
- Tice, D. M., Bratslavsky, & Baumeister, R. F. (2001). Emotional distress regulation takes precedence over impulse control: If you feel bad, do i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1), 53-67.
-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st Association, Toronto, august.
- 1 차원고접수 : 2012. 9. 30.
수정원고접수 : 2012. 12. 17.
최종게재결정 : 2013. 2. 12.

The Mediating Effect of Fear of Intimacy between Attachment with Parents and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Kyung-Won Lee

Jee-Yon Lee

Jin-Yi Jang

University of Inche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fear of intimacy between attachment with parents and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300 undergraduate students in metropolitan area were surveyed and data from 254 students analyzed. Results indicated that fear of intimacy has the more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than attachment with parents. Especially there is the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nd the past interpersonal pattern. And unlike attachment with mother,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nd attachment with father. Finding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d that fear of intimacy fully mediated the relation of attachment with parents and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only in the female student group. The result implicated that it is necessary to evaluate and intervene against fear of intimacy in prevention and treatment of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Finally,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attachment with parents, fear of intimacy, self-destructive behaviors,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